

##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인가? Yes!

요18:33-38

### 기초 문제

집을 지으려면 먼저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놓여도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

다윗의 시편 11편, 2-3절, 사악한 자들이 올바른 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면 사회의 기초들이 무너진다. 인간 사회의 기초: 절대적 진리들, 출20장의 십계명, 이 진리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특별히 1850년대 이후, 진화론, 공산주의, 천주교 현대 역본, 자유주의 등장

마르크스의 주장: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착취의 희생물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유토피아 건설

다윈의 주장: 우리는 무작위 진화론적 과정의 산물이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은 최대의 거짓말  
21세기 인간의 생각: 과학 만능주의

과학을 통해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이다.

일본 머스크 화성 프로젝트, 2024년 10월 15일,

스페이스X '젓가락 팔'로 로켓 회수...재발사 준비시간 한달→1시간 단축 [출처:중앙일보] (\*)

'마치 공상과학(SF) 소설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오늘은 엔지니어링 역사책에 기록될 날이다.'

스페이스X의 스타십 5차 시험비행 온라인 중계를 한 미국 NBC 방송 리포터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의 표현이다.

높이 145m '메카질라(Mechazilla)' 발사대에서 '스타십과 부스터 슈퍼헤비'로 구성된 2단 우주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떠올랐다.

우주 발사체와 발사대 그림(\*)

우주 발사체는 스타십과 슈퍼헤비로 구성됨, 총 121m, 5000톤

실제 여행선 스타십(50m)(\*), 부스터 이름은 슈퍼헤비(\*)

영상(\*)

발사 3분 뒤, 고도 70km에서 임무를 마치고 분리된 1단 부스터 슈퍼헤비가 자유낙하 중 지상 1km를 남겨두고 재점화됐다. 발사대를 향해 정확히 날아와 '젓가락'(chopsticks)이란 별명이 붙은 대형 로봇팔에 빨대가 꽂히듯 매끄럽게 안착했다. 발사 후 7분만이다. 우주발사체가 발사장으로 귀환해 공중에서 포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슈퍼헤비는 높이 71m, 직경 9m에, 총 무게 3675톤

아파트 20-25층 높이, (\*)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나와 내 생각이 진리이다.

모두가 신이 되고 모두가 절대자가 되는 시대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 진리는 다양하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이것은 기독교의 대척점, 특히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오늘 < >, 진리란 무엇인가? 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직시하는 사람, 진리를 꾀안는 사람,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 절대적 진리 부재의 문제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 권위가 사라진다. 어떤 형태의 권위든 존재하면 안 된다.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라.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 시간에 책상 위로 올라가서 떠들고  
제지하거나 하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비극: 윤리의 실종,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사라진다. 절대적 진리가 없으므로  
사람들은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없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낙태 사정을 보라. 출산 때까지 낙태 허용, 2022년 9월(\*)

문제: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내 것이 옳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요17:17). 절대자의 절대적 진리이다.

마귀의 시도, 말씀 공격, 의심

창세기 3:1,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창2:16-17

성경이 무너지면 모든 기초들이 무너진다. 천주교 사본 현대 역본들의 문제, 기초들이 무너지고 있다.

#### 예수님 처형 당시 상황

요18:33-38, 37절: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38절: 빌라도의 말, '진리가 무엇이나?'

아마도 당황해서.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다. 즉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귀를 막으려고.

특히 절대자의 절대적인 진리를 접하고 들을 기회가 오자 어떻게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냐고 생각하고 뛰쳐나갔다. 현시대 사람들도 비슷하다.

우리는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가?

마13장, 막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막4:14-15), 말씀을 뿌린다. 진리를 뿌린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한다.

#### 참 하나님과 최종 권위

성경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특징: 진리, 진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요8:44)

유일하신 참 하나님((the only true God, 요17:3)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진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주의 모든 명령들은 진리이니이다. (시119:151)

“진리가 무엇이나?” 빌라도의 질문, 대답: 진리는 하나님이며 그분의 모든 행적은 진리이다.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므로 하나님의 세상관, 인생관, 역사관은 100% 진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진리관(세상관, 인생관, 역사관)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그대로 살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진리의 말씀들을 계시해 주셨다.

성경에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414회),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진리이다(요17:17).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오직 성경'.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다. 이것은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불신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세상은 탈권위 시대. 그러나 우리의 최종 권위, 혹은 인간의 최종 권위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인 성경이다.

#### 참된 이야기, 참된 해석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참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참된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뜻의 성취 안에 하나님의 영광, 마귀의 정복, 인간의 구원 등이 다 들어 있다.

마6:33,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 공간을 관통하는 이 참된 이야기를 말해 준다.

사탄의 타락, 우주의 창조,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 죄의 시작, 구원자의 예언 및 등장, 인류 구속, 마귀 정죄,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은 인간과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유일한 참 이야기

특별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보여 준다.

인간의 모든 악행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며 인내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세상을 관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 특별히 성경은 예언을 보여 준다.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형상, 9장 70이레,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참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참된 해석도 보여 준다.

모든 글을 읽으면 해석해야 한다.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교리이다.

성경 안에는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을 담은 복음이 있다. 그러면 복음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올바른 해석 즉 교리를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다.

성경,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마귀, 천사들, 사람, 죄, 구원, 성화, 교회, 재림, 휴거,

부활, 천국과 지옥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성경을 정확하게 진리를 확인한다.

이런 교리 체계를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부른다. 절대적인 진리들, 불변한다.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든다. 하나는 진리, 다른 하나는 비진리

우리는 둘 다를 수용할 수 없다. 성경의 진리를 수용하면 다른 것들은 거부해야 한다.

베드로의 고백: 요6:66-69

#### 진리이신 구원자, 진리의 성령님

빌라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요18:37).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 계1:9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나는 진리 중 하나다가 아니다. 나는 바로 그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이므로 그분의 모든 언행은 진리이다.

죄들의 속죄, 구원, 하나님의 뜻, 천국과 지옥, 종교인들의 위선 책망, 부활과 휴거 등 모든 것이

진리이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시는 데도 진실하시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이시다.

마10:28,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떨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요8:31-32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요14:17)

구원받으면 진리의 영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며 가르쳐 주신다(요15:26; 16:13).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진리 사역이다.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행하시는 아들 하나님,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므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고후13:8).

####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구원자,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경 기록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며 진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야 한다.

위선자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 이런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요4:24).

진리를 기뻐해야 한다(고전13:6)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벧전1:22)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한다(벧후1:12)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한다(엡5:8-9).

진리를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다.

진리를 거부하면 파멸한다(살후2:10).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례하면 안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엡4:15).

벧전3:14-15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되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서의 인간 자체는 겸손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람, 그러나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다.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 사도 바울,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질책함

그러나 진리를 찾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부드러움(살전2:6-8).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의 교회가 필요하다.

딤후3:16,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한다.

#### 결론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 체계, 왜? 진리의 하나님이 주신 진리들의 체계이므로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를 가르친다.

성경,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마귀, 천사들, 사람, 죄, 구원, 성화, 교회, 재림, 휴거, 부활,

천국과 지옥

진리의 책인 성경대로 믿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